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4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4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7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만공사, 美 상호관세 현장대응반 가동
-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 ▶ 울산항만공사, 체선율 집중 관리 돌입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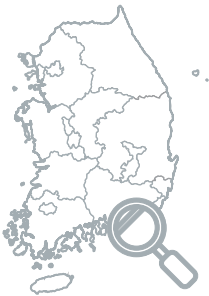
- ▶ 중국, 트럼프 관세 조치 속에 3월 수출 일시적 급등
- ▶ 중국산 항만 크레인 미국서 퇴출 조짐
- ▶ IMO, '50년까지 국제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규제안 승인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무역 전쟁 격화로 컨테이너 시장 혼란
- ▶ 정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
- ▶ 석유화학 업체, 업황 회복 지연과 소재 사업 등 동반 부진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만공사(BPA), 美 상호관세 현장대응반 가동¹⁾

- BPA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부산항의 물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현장대응반’을 가동함**

 - 미국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4월 5일부터 전 세계 대상 기본관세 10% 부과 및 특정 국가별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시행이 유예됨
 - 특히, 부산항의 경우 우리나라 연간 대미 수출입 물동량의 약 87%를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 2위 환적항으로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미주 수출입 화물을 환적 처리하고 있어 관세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
- 현장대응반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예정임**

 - 미주 물동량 및 항로 변화 모니터링, 미주행 선박의 하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석 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 신항 배후단지 내 임시장치장 운영, BPA가 운영 중인 미국 및 동남아 물류센터를 활용한 수출입 기업 화물 보관·이송 지원 강화 등의 지원책이 포함됨
- 향후 BPA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부산항의 수출입 및 환적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선사, 운영사 등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4.11.),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515>(2025.04.21. 검색)

2 BPA, 제1차 부산항 운영 경쟁력 강화 협의회 개최²⁾

- BPA는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이행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인 ‘2025년 제1차 부산항 운영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개최함
 - 이번 협의회는 BPA 주요 임원진, 북항 및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부산항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미래 대응 전략 수립을 논의함
 - 구체적으로 다수의 터미널 운영사 체제로 인한 운영 효율화 방안, 신·북항 연계성 강화, 친환경 및 자동화 등 항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노후 부두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됨
 - BPA는 이번 협의회가 단순한 논의를 넘어 정책으로 반영되는 실질적 협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최근 글로벌 해운시장 재편 및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따라 부산항의 물동량 및 항로 구성에 복합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현안 대응을 넘어 부산항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최근 해운시장은 정시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제미니(Gemini)와 같은 해운동맹 재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항 운영사 구성과 서비스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 운영하며,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운영사 간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논의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4.1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523>(2025.04.21. 검색)

2) 인천항



1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³⁾⁴⁾

❖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 '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힘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

- 해당 재개발 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인천시 컨소시엄)으로 내항 1·8부두 일원 약 42만 m²에 문화, 여가, 주거, 관광 기능이 포함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천 9백억 원이 투입될 계획임
- 금회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항만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함께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3분기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동사업자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 단지개발계획, 콘텐츠 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중임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4년 12월, 인천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의 토지이용 계획안은 주상복합(18.7%), 공원(18.3%), 문화복합시설(15.7%), 관광용지(14.8%), 도로(12.7%) 등으로 구성됨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연합뉴스(2025.03.26.),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4.0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784&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 (2025.04.20. 검색)

4) 연합뉴스(2025.03.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107100065> (2025.04.20. 검색)

2

인천항, '25년 1분기 연안여객실적 전년 대비 5.7% 증가한 14만 2천 명 기록⁵⁾

-  인천항만공사(IPA)는 '25년 1분기 연안여객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특히 3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0.0%로 급증했다고 밝힘
- 이 같은 증가세는 그간 위축됐던 여행심리 회복 및 다양한 홍보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IPA는 화물 집하장을 중심으로 시설 정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재도색 등 연안여객터미널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2025년 1분기 인천항
연안여객 수송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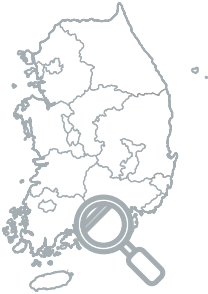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증가율	
	3월	1월~3월(1Q)	3월	1월~3월(1Q)	3월	1월~3월(1Q)
연안여객	48,374	134,699	62,896	142,353	30.0%	5.7%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4.0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781&search 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781&search%20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
(2025.04.20.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에 보관된 러시아산 알루미늄 다량 출고 대기중⁶⁾

로이터 통신은 원자재 거래업체 군보르와 비톨이 광양항의 런던금속거래소(LME) 창고에 있는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다량 출고하기 위해 대기중이라고 보도함

- 광양항 LME* 창고에는 러시아가 '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거래가 제한적인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보관되어 있음

* 전 세계에 공식 승인한 창고를 두고 금속 재고를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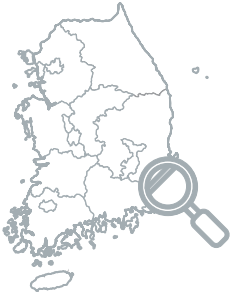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군보르와 비톨은 에너지 상품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전세계적 친환경 추세에 맞춰 금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비톨은 이미 광양항 LME 창고에서 알루미늄 일부를 출고해 운송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다만, 군보르와 비톨이 광양항에서 알루미늄을 출고하려는 이유는 불분명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KBS뉴스(2025.04.0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5141>(2025.04.23.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체선율 집중 관리 돌입⁷⁾

- UPA는 울산항의 체선율을 낮추기 위해 석탄, 양곡, 온산 3부두를 특별관리부두로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함
- 체선율은 선박 입항 후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선박의 비율을 의미함
- 울산항은 입항 선박의 약 92%가 부정기 선박으로 기항시간 조정에 한계가 있으며, 선박 대형화에 따른 수심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체선율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울산항 전체 물동량의 4% 정도를 하역하는 석탄부두, 양곡부두, 온산 3부두 등 3개 부두에서 전체 체선의 55.8%가 발생하고 있어 UPA는 해당 부두를 특별관리부두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함
- 아울러 총사업비 약 380억 원을 투입해 선박 대형화에 따른 항만시설 성능개선공사와 선석 수심 확보를 위한 유지 준설을 통해 체선율을 낮출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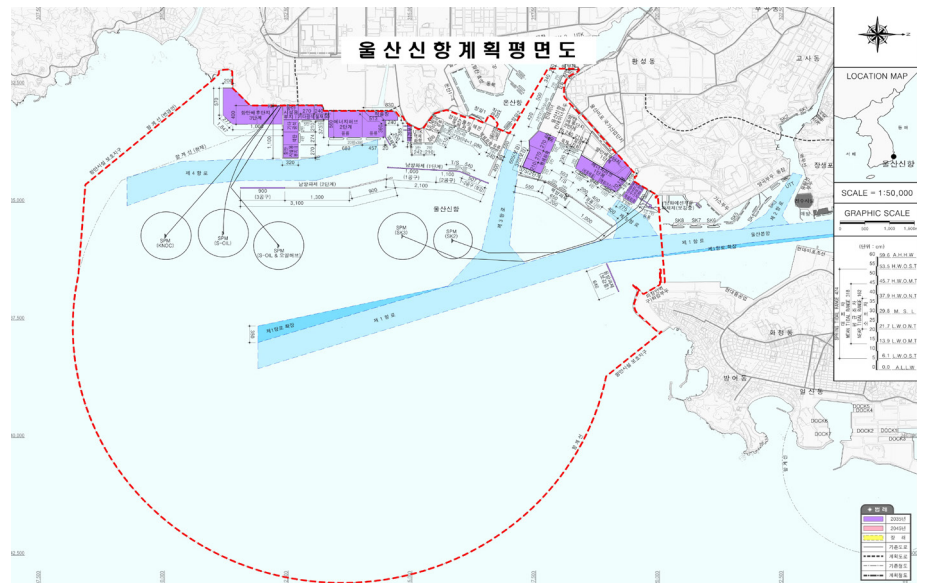
7) 울산항만공사(2025.03.27.),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4911>(2025.04.21. 검색)

2 울산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으로 ‘에너지 허브’ 구축 탄력 기대⁸⁾

울산항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북신항 에너지부두 접안능력 조정’, ‘남신항 남방파호안 내측 평면배치 변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청정연료 인수기지 조성’ 등의 변경이 반영됨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 수립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변경 수립하고 있음
- 북신항 에너지 부두의 접안능력 조정으로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배후단지에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의 항만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남신항 남방파호안 내측은 지난 1월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한 목재부두의 기타광석부두 변경과 남방파호안 내측에 계획된 기타광석부두 2선석 중 1선석의 축소 조정이 반영되어 배치됨
- 또한 석탄부두를 기타광석부두 위치로 옮기고, 기존 석탄부두는 장래 울산신항 물동량 증대와 에너지허브 2단계 시설 확충에 대비한 항만시설용부지로 변경됨

울산신항 계획 평면도



자료: 울산항만공사(2025.04.11.),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924> (2025.04.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울산항만공사(2025.04.11.),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924> (2025.04.21. 검색)

5) 평택·당진항



1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⁹⁾¹⁰⁾

- 
지난 3월 25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됨

 - 해당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22.9만 m² (축구장 32개 규모)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8년 8월 해양수산부에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1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24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5년 1월 건설공사를 착공함
 -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 편의·공공시설용 부지 14.2만 m²와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 m²로 구성됨
-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3월 10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한 변경협약을 체결함

 - 변경협약은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사업에 적용함
 - 한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 1,19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80억 원, 고용유발 효과 550명, 취업유발 효과 747명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완공 후 평택항의 항만인프라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9)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3.26.),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134&pagelD=K006003001>(2025.04.21. 검색)

10) 뉴시스(2025.03.24.), https://www.news1.com/view/NISX20250324_0003109871(2025.04.21. 검색)

6) 포항항



1 포항영일만항,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일본 서안 크루즈 운항 개시¹¹⁾

▶ 팬스타그룹은 21일 오후 포항시와 ‘영일만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서에는 양측이 영일만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하거나 기항하는 크루즈를 연 4회 이상 운항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김
- 팬스타 미라클호는 팬스타그룹이 국내 최초로 건조한 중소형 크루즈로 총톤수 2만 2천 톤, 102개 객실 규모로 최대 355명 승객 수용이 가능함
- 팬스타 미라클호는 지난 4월 13일 취항해 주중에는 부산-오사카 간 세토내해크루즈, 주말에는 부산원나이트크루즈를 운항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포항과 일본 서안 도시를 잇는 부정기 형태의 크루즈를 운항할 계획임
- 포항 영일만을 출발지로 해 일본의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가나자와 등을 기항하는 3박 4일 코스의 크루즈 상품을 개발해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1) 한국해운신문(2025.04.21.),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464\(2025.04.21. 검색\)](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464(2025.04.21.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묵호~울릉 여객선 이용객 감소 대응 위해 '동해패스' 도입 추진¹²⁾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해운항관리센터는 여객선 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역 관광 침체와 여객선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동해패스' 도입을 추진함

- 최근 5년간 동해·강릉 지역 여객선 이용객은 '19년 34만 2,980명에서 '24년 15만 4,073명으로 약 55% 감소함
- 포항·후포 지역의 대형 크루즈 여객선 운항 확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 인근 항로의 카페리 취항 등으로 수요 분산 현상이 동해·강릉 지역 여객선 이용객 감소 원인으로 파악됨
- 묵호-울릉도(씨스타1호), 강릉-울릉도(씨스타5호) 노선은 운항을 지속 중이나, 여객선사인 씨스포빌은 적자 운영 상황임
- 이에 따라 동해운항관리센터는 동해시 및 여객선사와 협력해 여객선 수요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임

'동해패스'는 묵호~울릉도 여객선 또는 코레일 관광상품 이용자에게 동해시 주요 유료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할인 대상 관광지는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무릉계곡, 무릉별유천지, 천곡항금박쥐동굴 등이며, 동해 여객선터미널 또는 동해역에서 동해패스 수령이 가능함
- 본 제도는 동해시의 야간 테마 관광 프로그램인 '별빛동행기행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2) 경북매일(2025.04.15.), https://www.kbmaeil.com/article/20250415500660?site_preference=normal(2025.04.21. 검색)

8) 목포항



1 전남 신안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목포신항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¹³⁾

- 전라남도가 '33년까지 신안군 해역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함
- 민간 자본 20조 원을 투입해 10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며, 설비 용량은 3.2GW로 원자력발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임
- 목포신항은 이번 사업의 핵심 지원 기지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임
- 전남도는 하부 구조물, 타워,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목포신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터빈·블레이드·하부구조물 제조기업 100개를 유치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9) 대산항



1 국제크루즈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 기여 전망¹⁴⁾

-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가 5월 서산 대산항에서 출항하며, 충남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코스타세레나호는 5월 19일 대산항을 출발해 대만基隆과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항에 25일 도착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항로를 운항할 예정임
- 코스타세레나호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바다 위 특급호텔로 불리며, 총톤수 11만 4,000톤 규모로 승객과 승무원 포함 약 3,700명이 탑승함
- 충청남도에서는 이번 운항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 서산시는 제주, 부산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7대 기항지로 선정되었으며,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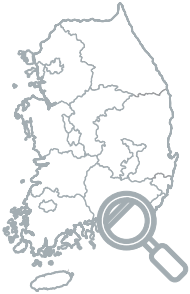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3) 조선비즈(2025.04.22.),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4/22/H425D075INERPPN5KPWTTGVL6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04.24. 검색\)](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4/22/H425D075INERPPN5KPWTTGVL6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04.24. 검색))

14) 충남일보(2025.04.13.),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464\(2025.04.21. 검색\)](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464(2025.04.21. 검색))

10) 마산항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항로표지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실시¹⁵⁾

-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청)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관내 항로표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함

 - 항로표지는 주간에는 색상 및 형상, 야간에는 광파(빛)로 선박에 항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선박 안전 항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
 - 이번 점검은 마산, 거제, 통영 해역 등 관내 전 해역에 설치된 총 368기의 항로표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조물 파손·부식 여부 및 부속 장비 기능상태 등을 중점 점검함
 - 기능 이상 발견 시 현장 즉시 복구 가능한 경우는 신속 조치하며, 자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정비할 계획임
- 마산청은 해빙기 기간 중 항로표지 시설의 체계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선박 안전 항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며, 해상 위험요소 개선 및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4.10.),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1&bbsidx=109860>(2025.04.21.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 트럼프 관세 조치 속에 3월 수출 일시적 급등¹⁶⁾

- 📍 미국의 새로운 관세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제조업체들이 선적을 서두르면서 '25년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12.4% 급등하였으나,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전 미국으로 상품을 빠르게 선적하면서 3월 수출 증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향후 수개월 동안 선적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중국 내 수요가 부진함을 시사하고 있음
 - 원유 수입은 증가했지만, 대두·석탄·철광석·구리 수입은 감소했으며, 특히 미국산 대두 수입은 같은 기간 36.8% 급감함
- 📍 한편,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시장은 추가적인 재정·통화 정책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관세로 인한 외교 불확실성 속에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수출산업은 복잡하고 엄중한 대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등 다음 달 수출 수치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Reuters(2025.04.14.),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march-exports-beat-expectations-with-124-gain-imports-fall-2025-04-14/>(2025.04.21. 검색)

2 무역 전쟁 여파에 따른 중국발 화물선 취소 급증¹⁷⁾

-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와 무역 전쟁 격화로 인해 미국 수입업체들의 중국발 화물선 운항 취소가 증가하고 있음
 - 물류회사 HLS 그룹에 따르면, 중국발 블랭크 세일링은 총 80건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해운사들이 태평양 횡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하기 시작함
 - 주요 해운 얼라이언스인 ONE의 경우 5월에 재개 예정이었던 항로(칭다오~ 닝보~ 상하이~부산~밴쿠버~터코마)를 추후 공지가 있을 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기존 노선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월밍턴 항구 기항을 취소할 계획임
-  중국에서 북미로 향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항만·물류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
 - Sea-Intelligence의 CEO는 ‘현재 주문 감소가 선박 운항 스케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아시아-미국 노선에서 중국 화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감소가 불가피하며 대규모 블랭크 세일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현재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며,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중 54%가 중국산임
-  실제로 3월 말~4월 초까지의 글로벌 및 미국 무역항로 선적 예약량은 급감하였고, 특히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주요 품목인 의류, 패션, 액세서리, 섬유 등이 50%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CNBC(2025.04.16.), <https://www.cnbc.com/2025/04/16/trade-war-fallout-china-freight-ship-decline-begins-orders-plummet.html>(2025.04.21.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25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트윈 시범 운영¹⁸⁾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가상 모델(디지털 트윈)이 '25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해양주간(Singapore Maritime Week, SMW) 개막식에서 발표함

 - MPA는 선박, 항만 운영, 환경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트윈이 항해 안전성, 운영 효율성, 환경 지속 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기름이나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있어서도 상황 인식 및 긴급 대응 능력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싱가포르항의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오염물질 확산 경로를 모델링하는 분야에도 사용될 것으로 밝힘

 - 이 같은 디지털 트윈은 MPA의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선박 정보, 해상 및 항만 지리 데이터, 날씨 정보 등을 통합하는 한편, AI와 예측을 통해 안전 관리, 사고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 아울러 메탄올 및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벙커링의 안전 향상을 위한 표준작업지침(SOP)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임
-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트윈 기술은 MPA가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GovTech) 및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개발 중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업계 전반에 배포할 예정임

 -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 해운 네트워크로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공유할 계획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8) The Straits Times(2025.03.24.),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digital-twin-of-singapores-port-to-be-tested-in-second-half-of-2025>(2025.04.20. 검색)

2 블랙록과 이탈리아 해운회사(MSC), 중동 항만의 판도를 흔드는 중¹⁹⁾

-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과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회사 MSC가 홍콩 기업 CK 허치슨으로부터 228억 달러에 43개 항만을 인수함
 - 이번 인수로 블랙록과 MSC는 UAE, 오만,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 전역에 걸친 12개 전략적 항만의 운영권을 확보하게 됨
 - 특히 오만 소하르 항만(오만 해상화물의 80% 담당)과 이라크 바스라 항만(이라크 유일의 해상 출구) 등 중요 관문 항만들이 포함됨
-  이번 인수는 중동 지역 최대 항만 운영사인 DP월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전문가는 DP월드가 외적으로는 이 거래가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화가 나고 두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 업계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선박 소유주들이 DP월드 같은 운영사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항만을 매입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함
-  이번 거래는 미중 무역 갈등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기업 이익 추구 측면도 강함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축소를 추진 중이며, 블랙록은 이를 통해 자사의 이미지를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포지셔닝할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9) Middle East Eye(2025.03.26.), [https://www.middleeasteye.net/news/how-us-blackrock-italian-shipping-dynasty-upending-middle-east-port-business\(2025.04.17. 검색\)](https://www.middleeasteye.net/news/how-us-blackrock-italian-shipping-dynasty-upending-middle-east-port-business(2025.04.17. 검색))

3 일본, 해상 부유형 데이터센터 구축²⁰⁾

일본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부유형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임

- 해당 프로젝트는 NYK 라인, NTT 시설, 요코하마시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주도하며, 부지 및 에너지 제약을 극복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데이터센터는 25m × 80m 크기의 부유식 플랫폼에 컨테이너 기반 서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배터리 저장 장치를 탑재하여 육상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25년 가을 요코하마항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실증 실험에서는 해상 모델의 에너지 효율성, 염분 손상 저항성, 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임
-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장래 해상 풍력발전소 인근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임
- 해상 부유형 데이터센터 구축은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2040비전*'에 부합하며, 디지털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40년을 목표로 일본의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산업전략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0) Capacity Media(2025.03.31.), [https://www.capacitymedia.com/article-japan-plans-offshore-floating-green-data-centre\(2025.04.24. 검색\)](https://www.capacitymedia.com/article-japan-plans-offshore-floating-green-data-centre(2025.04.24. 검색))

4 인도, 서류 미비로 러시아산 원유 운반선 입항 거부²¹⁾

 인도 항만 당국은 문서 미비를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안다만 스카이스(Andaman Skies)’의 입항을 거부함

- 이 선박은 루코일(Lukoil)이 판매한 약 10만 톤의 바란데이 원유를 싣고 무스만스크 항에서 출발하여 인도 국영 정유사인 인디언오일에 납품할 예정이었음
- '04년에 건조된 이 선박은 인도 항만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된 유조선이 요구하는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사 또는 인도 해사 당국이 인정한 기관의 선박안전인증을 보유하지 않음
- 해당 선박은 인도에 기반을 둔 다카르 클래스(Dakar Class)의 인증을 받았으나, 이는 인도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임
- 이번 조치는 '25년 1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인도의 감시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조치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인도 Adani ports(아다니항만), 25억 달러 규모 호주 터미널 인수²²⁾

 인도 최대의 민간 항만 운영업체인 아다니항만은 호주 심해 석탄 수출 터미널을 약 25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터미널은 호주 퀸즐랜드 북부에 위치한 노스 퀸즐랜드 터미널로, 연간 처리용량이 5천만 톤인 심해 석탄 수출 터미널임
- 아다니 포트는 지난 '11년에 해당 터미널을 인수했으나, '13년 20억 달러 수준으로 아다니 가문에 매각한 바 있음
- 한편, 아다니 포트는 이번 재인수를 통해 터미널의 비핵심 자산과 부채도 함께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단기간 내 정리할 계획임
- 또한 이 터미널의 전략적 위치와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석탄 수출 확대 및 향후 그린 수소 수출 기회를 모색하며, 향후 4년 내 EBITDA²³⁾를 설정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1) Reuters(2025.03.28.),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denies-entry-russian-oil-loaded-ship-over-documentation-sources-say-2025-03-27/\(2025.04.21. 검색\)](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denies-entry-russian-oil-loaded-ship-over-documentation-sources-say-2025-03-27/(2025.04.21. 검색))

22) Reuters(2025.04.18.), [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indian-billionaire-adani-sell-australia-terminal-adani-ports-bloomberg-news-2025-04-17/\(2025.04.21. 검색\)](https://www.reuters.com/markets/deals/indian-billionaire-adani-sell-australia-terminal-adani-ports-bloomberg-news-2025-04-17/(2025.04.21. 검색))

23)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재무 지표로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을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을 의미함

3) 미주



① 중국산 항만 크레인 미국서 퇴출 조짐²⁴⁾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크레인 시장의 재편이 예고됨

 - 행정명령은 중국산 해양·물류·조선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특히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 ZPMC는 글로벌 항만 크레인 시장의 70%, 미국 내에서는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제재 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앞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산 크레인을 스파이 도구로 의심해 제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한층 강화한 것임
- 국내에는 크레인 제조업체가 3개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HD현대삼호는 부산항 신항 등 국내와 싱가포르에서 크레인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미국 진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음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베트남 법인을 통해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시장에서 항만 크레인을 수주하고 있으며,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HJ중공업은 국내 진해신항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진출을 목표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파이낸셜뉴스(2025.04.13.), <https://www.fnnews.com/news/202504131809239798>(2025.04.21. 검색)

2 CK허치슨, MSC 자회사에 파나마 항만 매각 추진에 중국 반발²⁵⁾²⁶⁾

-  파나마 감사원이 홍콩계 CK 허치슨의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에 대해 결제 불이행 및 회계 오류 등 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함

 - PPC는 CK 허치슨의 자회사로서,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항과 크리스토팔항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해당 회사 지분의 10%를 갖고 있음
 - 파나마 감사원장은 PPC가 자회사를 통해 수익 일부를 빼돌려 모회사 순이익을 줄였고, 그 결과 24년간 12억 달러(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
 - 이번 감사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운하 환수 위협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은 PPC가 파나마 당국에 지급했어야 할 배당금과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함
-  CK 허치슨이 추진한 230억 달러 규모의 항만 매각 계약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충돌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 CK 허치슨은 파나마 발보아항·크리스토팔항 등 전 세계 43개 항만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이끄는 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약을 발표함
 -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거래를 ‘파나마운하 재탈환’이라 언급하며 외교 성과로 강조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파나마를 방문해 안보 우려를 제기함
 - 중국은 거래 직후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CK 허치슨과의 협력 중단 지시 및 홍콩 내 여론전을 전개하며 강하게 대응함
 - 항만 매각 계약은 4월 2일 서명 예정이었으나, 미-중 갈등 여파로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상태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매일신문(2025.04.15.), [https://www.imaail.com/page/view/2025041510034717270\(2025.04.21. 검색\)](https://www.imaail.com/page/view/2025041510034717270(2025.04.21. 검색))

26) 이코노믹리뷰(2025.04.15.),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046\(2025.04.21. 검색\)](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046(2025.04.21. 검색))

4)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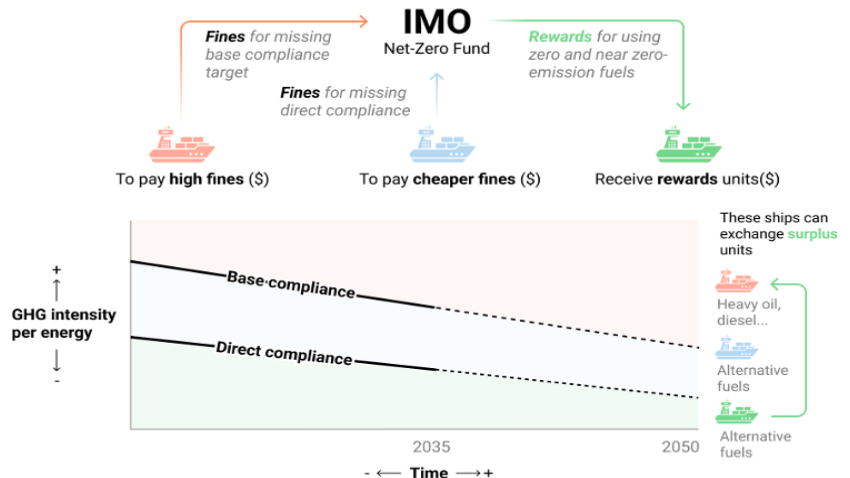


1 IMO, '50년까지 국제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규제안 승인²⁷⁾

- IMO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83 회의에서, '50년까지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Net-Zero)로 하는 'IMO net-zero 프레임워크'를 의무화하는 MARPOL Annex VI 개정 초안을 승인함
- 이번 규제는 해운 산업 전체에 대해 배출 한도와 탄소 가격 부과를 의무화한 첫 규제로, 해당 규제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국제 해운 CO2 배출의 약 85% 차지)에 적용 예정이며, 정식 채택은 '25년 10월 예정, '27년부터 시행될 계획임
- 해운사는 연료 온실가스 집약도를 매년 감축해야 하며, 기준치는 '08년 'Well-to-Wake' 배출량(선박 연료가 생산되고 운송되어 선박 엔진에서 연소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93.3gCO₂eq/MJ임
- IMO는 이중 목표(dual-tiered target) 시스템을 적용하여, Base Target(기준 목표)은 '28년까지 4%, '35년까지 30%, 보다 엄격한 Compliance Target(준수 목표)은 '28년까지 17%, '35년까지 43%로 설정하여, 단계별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끔 설정함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Functioning of the IMO Net-Zero Framework



Source: T&E

자료: T&E(2025.04.11.), <https://www.transportenvironment.org/uploads/files/Impact-of-the-IMOs-draft-Net-Zero-Framework-April-2025.pdf>(2025.04.22. 검색)

T&E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Port Technology(2025.04.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mo-approves-global-shipping-net-zero-regulations/>(2025.04.22. 검색)

2 로테르담항, 암모니아 선박 연료 공급 시범 성공²⁸⁾

로테르담항은 첫 선박 간(ship-to-ship) 암모니아 벙커링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26~'27년부터 본격 도입될 암모니아 연료 선박에 대비한 주요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함

- Maasvlakte 2 APM 터미널에서 진행된 이번 시범에서는, 영하 33도로 냉각된 액체 암모니아 800m³를 두 액화가스 운반선 사이에서 2시간 30분 동안 안전하게 이송하였음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항만 연료 도입 준비도 평가 기준을 활용해 대체연료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LNG, 메탄올에 대한 준비 수준은 이미 확보한 가운데, 이번 성공적인 시범을 통해 암모니아에 대한 준비도도 레벨 7로 상승했다고 발표함
- 로테르담항은 이번 시범에 사용된 암모니아는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 암모니아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암모니아의 대체 연료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암모니아를 해운 산업의 대규모 탈탄소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8) Port Technology(2025.04.1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rotterdam-pilots-safe-bunkering-of-ammonia/\(2025.04.22. 검색\)](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rotterdam-pilots-safe-bunkering-of-ammonia/(2025.04.22. 검색))

5) 오세아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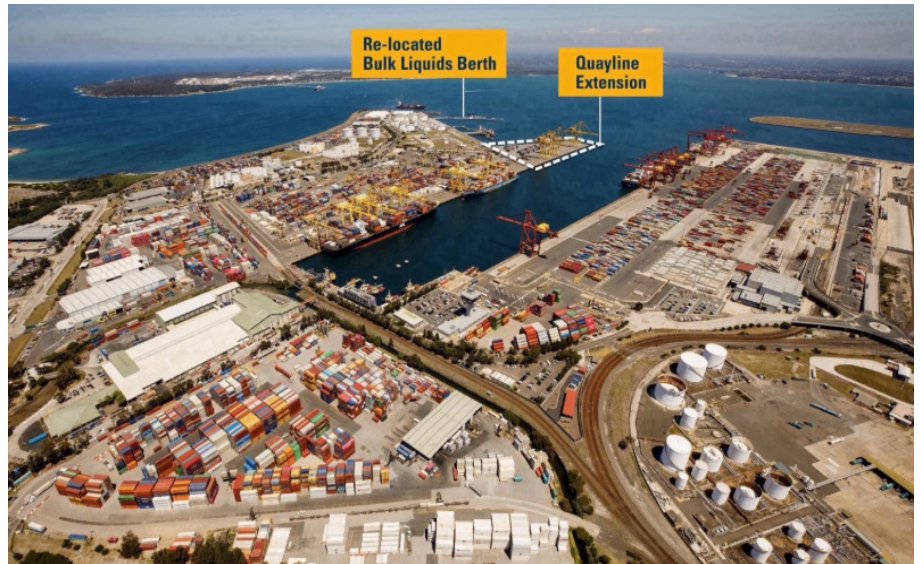


1 호주 보타니항, 컨테이너 부두 균형화(Quayline Equalisation) 계획 추진²⁹⁾

- NSW Ports는 보타니항 내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이 동등한 접안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부두선 균형화(Quayline Equalisation)’ 사업을 계획 중임
 - 현재 세 곳의 컨테이너 터미널 중 두 곳은 동시에 3척의 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하나, 나머지 한 곳은 3척의 소형 선박만 접안 가능함
 - 본 사업은 Brotherson Dock 남측 부두를 314m 연장하고, 선박 하역이 가능한 접안 공간과 하역장(Hardstand)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에 따라 기존 Bulk Liquids Berth 1은 철거되고 Bulk Liquids Berth 2는 남측으로 이전되며, 관련 파이프라인 및 액체화물 운영 건물 등 부대시설도 재정비됨
- NSW Ports는 컨테이너 부두 균형화 사업이 보타니항의 효율성과 NSW주 전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밝힘
 - 본 사업은 『NSW Ports 2063 지속가능 성장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5년 중순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임
- 지역사회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항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위한 공공참여 절차도 함께 진행함
 - NSW Ports는 부두 확장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 대상 온라인 설명회, 현장 드롭인 세션, 우편 홍보,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음
 - 커뮤니티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 중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음
 - 향후 환경영향평가서(EIS)가 제출되면, NSW주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 전시하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임

29) Daily Cargo News(2025.04.17.), [https://www.thedcn.com.au/sticky/nsw-ports-planning-port-botany-quayline-equalisation/\(2025.04.21. 검색\)](https://www.thedcn.com.au/sticky/nsw-ports-planning-port-botany-quayline-equalisation/(2025.04.21. 검색))

보타니항 컨테이너 부두
균형화 사업 대상지



자료: Daily Cargo News(2025.04.17.), <https://www.thedcn.com.au/sticky/nsw-ports-planning-port-botany-quayline-equalisation/>
(2025.04.21.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아프리카



1 트랜스넷, 더반항 정박 적체 해소 후 항만 운영 정상화 추진³⁰⁾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영 물류기업 트랜스넷(Transnet)은 장기간 더반항 정박 대기 중이던 선박 20척을 모두 해소해 현재는 대기 선박이 없다고 밝힘
 - 이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정박 대기 문제의 해결로, 선사 및 수출입 화주들에게 큰 부담이던 항만 혼잡 문제의 획기적 개선으로 평가됨
 - 해당 성과는 더반 다목적터미널(MPT)이 20만 TEU를 처리한 기념행사 자리에서 발표되었으며, 트랜스넷은 이는 경제 회복과 터미널 역량 향상의 결과라고 강조함
- ▶ 트랜스넷은 지난 5년간 더반 MPT에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4대를 도입했고, 현장 인력의 노력과 함께 적체 해소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함
 - 향후 추가 장비로는 STS 갠트리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러버타이어형 갠트리(RTG), 이동식 크레인 등이 도입 예정임
 - 최근에는 70톤급 예인선 5척을 도입해 접안 서비스 속도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헬리콥터 도입 협상도 예정됨
- ▶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더반항의 남아프리카 최고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다만, 일부 수출입 물동량이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인접국으로 우회되고 있는 상황이 적체 해소의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도 존재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0) Independent Online(2025.04.10.), <https://www.iol.co.za/business-report/economy/transnet-revitalises-maritime-operations-after-clearing-vessel-backlog-at-port-of-durban-32423e94-f5e7-421c-b983-b2d60357e26e>(2025.04.21.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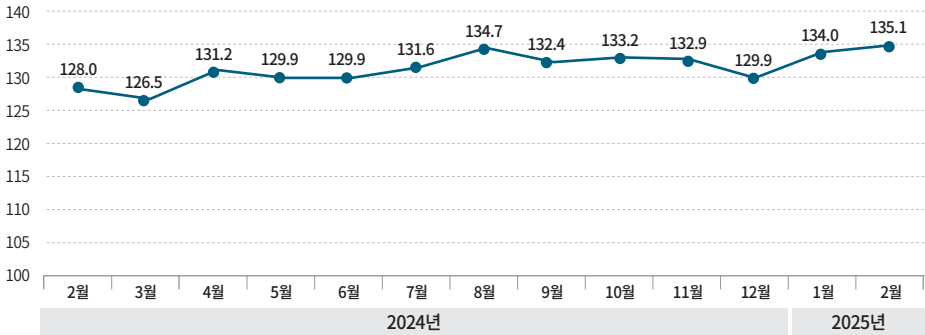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5년 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8% 증가³¹⁾

- ’25년 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135.1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45.9p로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2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3.4p로 전월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6.7% 증가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8.0	126.5	131.2	129.9	129.9	131.6	134.7	132.4	133.2	132.9	129.9	134.0	135.1	0.8	5.5	
China Index	138.8	137.3	153.8	144.3	144.1	145.6	149.3	145.6	146.1	143.4	141.0	142.6	145.9	2.3	5.1	
North Range Index	106.3	112.6	110.1	111.1	109.8	111.6	114.1	112.3	114.9	114.8	107.8	114.9	113.4	-1.3	6.7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n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125\(2025.04.21.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n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125(2025.04.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ISL(2025.03.31.), [https://www.isl.org/en/services/n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225\(2025.04.21.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n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225(2025.04.21. 검색))

2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세계 무역 전망 하향 조정³²⁾

- 주요 해운·경제 관련 기관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로 올해 전망을 대거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표한 세계 무역전망 및 통계보고서(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에 따르면 '25년 전 세계 상품 교역이 1.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함
 - WTO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무역량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감소 폭은 최대 1.5%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역시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 하향 조정함
- 컨테이너 시장 부문에서는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컨테이너 시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 관세 완화 조치에도 미주항로의 물동량 회복을 이끌지는 못했으며, 향후 3주간 중국 내 화물 예약은 30~60% 감소,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10~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2) Splash247(2025.04.17.), <https://splash247.com/trumps-tariffs-crash-world-trade-forecasts/>(2025.04.21. 검색)

3 무역 전쟁 격화로 컨테이너 시장 혼란³³⁾

전 세계 무역의 핵심축인 컨테이너 해운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격화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고 있음

- 최근 몇 주간 쏟아진 관세 발표, 예외 적용, 철회 조치들이 수출입 업체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약 60개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전례 없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4월 9일 발효되었으나 불과 하루 만에 대부분 국가에서 3개월 관세가 유예되었으며, 보복관세를 선언한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산 전자제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외에도 품목별로 관세율 및 적용 시기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

이로 인해 아시아발 컨테이너 예약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90일 유예 조치와 중국과의 갈등 격화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중국발 수출 컨테이너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블랭크 세일링 증가로 예약이 급감하였으며, 다른 항로의 화주들은 90일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다시 조기 선적을 진행 중으로 단기적으로는 해상 운임 상승, 이후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미 미국 수입업자들이 작년 11월 대선 이후 관세인상을 예상해 물량을 미리 들여와 재고를 쌓아둔 상황이며, 중국 내 공컨테이너 적체 문제 등으로 해운사들의 선대 배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3) Freight Waves(2025.04.17.), <https://www.freightwaves.com/news/trump-trade-war-halts-ships-strands-empty-containers>(2025.04.21. 검색)

2) 양곡



1 '25년 3월 말, 대두, 옥수수의 수입 단가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추세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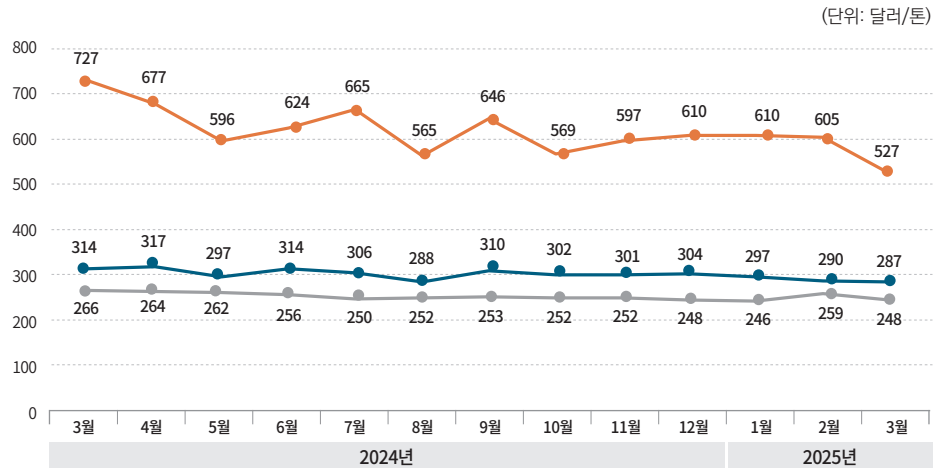
☛ '25년 3월 말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한 톤당 287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대두는 27.5% 감소한 527달러, 옥수수 역시 6.8% 감소한 248달러를 기록함

☛ 전월 대비 실적에서도 주요 세 품목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밀(-1.2%), 대두(-13.0%), 옥수수(-6.8%)를 각각 기록함

- 한편, 대두의 가격 하락세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대두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³⁵⁾

곡물별 수입단가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314	317	297	314	306	288	310	302	301	304	297	290	287	-1.2	-8.7
대두	727	677	596	624	665	565	646	569	597	610	610	605	527	-13.0	-27.5
옥수수	266	264	262	256	250	252	253	252	252	248	246	259	248	-4.3	-6.8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 (2025.03.31.), [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4.20.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59(2025.04.20. 검색))

35) 축산경제신문 (2025.04.11.),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82\(2025.04.20. 검색\)](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82(2025.04.20. 검색))

2 중국의 '25년~'34년, 10년 간 곡물 수확량 증가 전망³⁶⁾

-  중국의 농업 농촌부는 최근 발간한 농업전망보고서에서 '25년부터 향후 10년 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함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중국의 총 곡물 생산량은 7억 900만 톤으로 예상, 이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수치이며, 헥타르 당 평균 수확량은 5.9톤, 총 경작 면적은 약 1억 1,900만 헥타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아울러 '34년의 곡물 수확량은 연평균 7.8% 증가하여 헥타르 당 6.3톤, 총 생산량은 7억 5,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세부적으로 '25년 대두 생산량은 2,117만 톤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재배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4년 대두 수입은 1억 50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6.5% 증가한 실적임
 - 주요 수입국으로는 브라질(71%), 미국(21%), 아르헨티나(4%)의 순이었음
 - 다만, 중국 내 대두 생산은 정책적 지원 하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10년 간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입량은 '34년까지 7,903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 구조 변화에 있어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의 수입은 감소하여 '34년 기준 전체 곡물 수입은 1억 1,300만 톤으로 연평균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소비에 있어 수요는 느리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니즈와 다양한 식단을 추구하는 소비의 변화는 생산 및 무역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함
 - 이와 함께 농업 농촌부는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시장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은 중국 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6) China Daily(2025.04.21.), <https://www.chinadaily.com.cn/a/202504/21/WS68059dd6a3104d9fd38208ab.html> (2025.04.21.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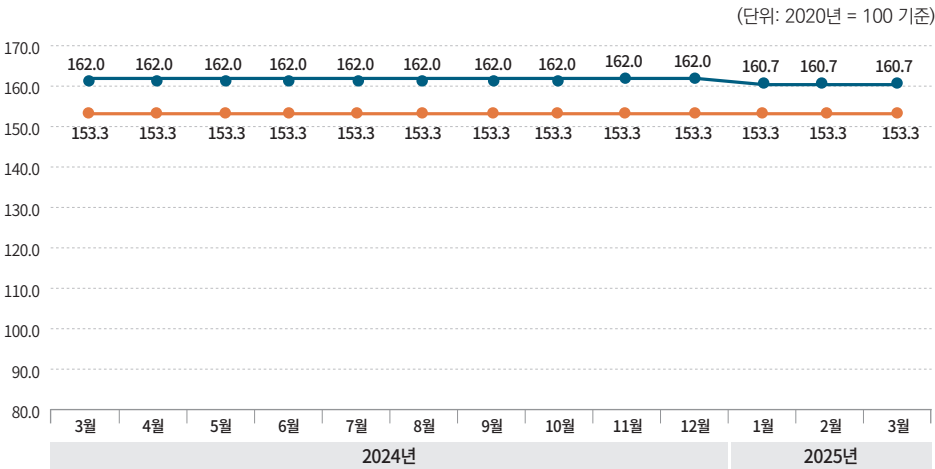


1 '25년 3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5년 3월 포틀랜드 및 고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0.7p 및 153.3p를 기록함
- 고로 시멘트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으며 포틀랜드 시멘트는 ’24년 12월 소폭 감소세를 보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160.7	160.7	160.7	0.0	-0.9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4.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4.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 업계 설비 가동 중단 확산, 전기료 인상과 건설경기 침체 ‘이중고’³⁷⁾

-  국내 시멘트 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복합 악재로 생산 설비 가동을 잇따라 중단함

 - '25년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으며 국내 시멘트 생산라인 총 35기 중 현재 8기가 멈춰선 상태이며, 4월 중 2기 추가 중단이 예정됨
-  주요 시멘트 공장에서는 가동률을 낮추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음

 - 쌍용C&E 동해공장은 소성로(고온 용광로) 7기 중 1기의 가동을 지난달부터 중단하였으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도 6기 중 2기를 '24년 하반기부터 중단한 상태임
 - 관계자는 “전기료 부담이 급증해 가동률을 조정 중이며, 출하량 감소로 수익성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함
-  산업용 전기료는 '23년 10월 10.2%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료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6%p 증가함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폐열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용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상승 폭이 절감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  동해시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 감소로 협력업체 계약 종료 및 인력 감축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항만 하역 일거리가 줄면서 지역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지역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7) 대한경제(2025.03.3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3084021>(2025.04.21.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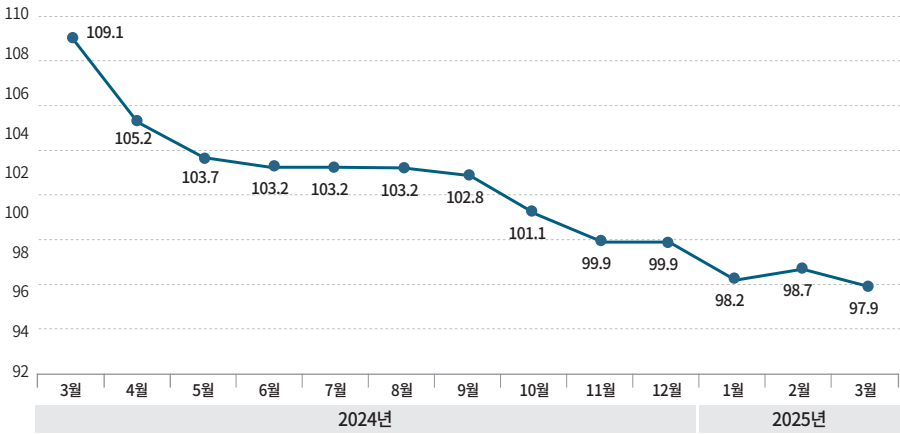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97.9p 기록, 감소세 지속

'25년 3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97.9p를 기록함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09.1	105.2	103.7	103.2	103.2	103.2	102.8	101.1	99.9	99.9	98.2	98.7	97.9	-0.8	-10.3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4.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4.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토교통부, 골재 품질관리 및 채취 제도 전반 개선 추진³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골재 품질관리 미흡 지적에 대해, 골재 품질 향상 및 양질의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함

품질검사 강화 관련

- '22년 8월부터 국토부 지정 품질관리전문기관(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간 약 7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함
- 사전 통보 없는 수시검사는 '23년 28개 업체 → '24년 52개 업체로 확대되었으며 검사 불합격 시 판매중지 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함
- '24년 기준 5개 업체 적발되었으며 지자체 고발 조치를 완료함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추진

- 골재의 품질과 채취원을 전 과정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재 유통이력제도' 도입 중임
- 현재 10개 업체 대상 시범사업('24년 12월~) 운영 중이며 해당 제도를 의무화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24.8.7. 발의) 조기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 중임

토분·순환골재 품질관리 개선

- 콘크리트 품질 보호 목적으로 토분 함유량 기준 도입 및 현장 간이시험법이 마련 중임
- 순환골재는 KS 인증체계로 일원화, 국토부 주관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능력 검사제도 도입도 추진 예정임

양질의 천연골재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 '24년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통해 환경 규제 취지 유지하면서도 현장 적용 가능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함
-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는 1년 단위 → 5년 단위로 유연화('24년 12월)하였으며 산림골재는 기존 채석단지 인접 시 확대 허용, 6부 능선 이상도 환경 영향 적으면 채취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불량 골재 유통을 차단하고, 골재 채취환경 개선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8) 대한정책브리핑(2025.04.0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092157192370380>(2025.04.21.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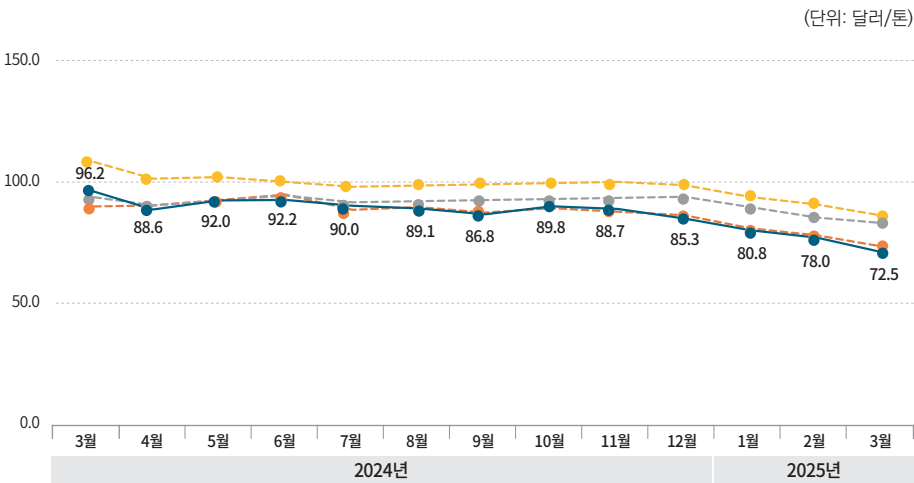


1 '25년 3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3월 평균가는 톤당 72.5달러로 전월 대비 7.1%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라만탄산, 중국 남부의 유연탄 가격 모두 각각 5.3%, 2.1%, 4.7%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6.2	88.6	92.0	92.2	90.0	89.1	86.8	89.8	88.7	85.3	80.8	78.0	72.5	-7.1	-24.7
리차드베이	89.6	90.1	92.4	93.9	88.3	89.5	87.5	89.0	88.3	86.4	81.6	79.0	74.8	-5.3	-16.6
칼리만탄	93.3	90.4	92.4	93.7	91.5	91.6	91.9	93.1	93.6	93.2	90.0	86.3	84.5	-2.1	-9.4
중국남부	108.4	101.5	102.0	99.7	98.4	99.2	99.8	100.7	100.2	98.9	94.6	91.9	87.6	-4.7	-19.2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4.17](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4.17). 검색)

김영호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핀란드, 탈석탄 기조에 동참³⁹⁾

 핀란드는 헬싱키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살미사아리 발전소를 폐쇄하며 탈석탄 목표를 4년 앞당겨 달성함

- 이로써 헬싱키시의 탄소배출량을 30%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 핀란드는 '19년 석탄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풍력과 수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여 '22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김
-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이 약 30%대로 높고, 최근에도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탈석탄 흐름에 뒤처지고 있음
- 특히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30년 목표치인 14.3GW에 크게 못 미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세계 평균보다 낮은 9~10% 수준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9) 한겨레(2025.04.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0276.html>(2025.04.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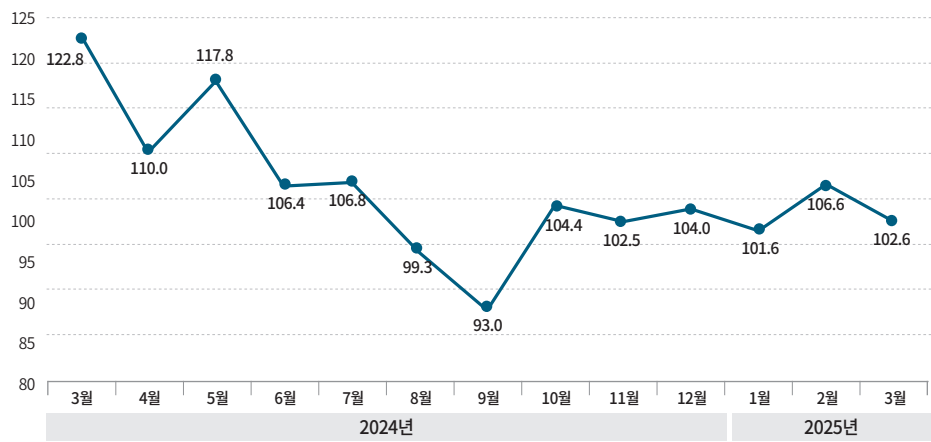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5년 3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3.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한 102.6달러 기록

- '25년 3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2.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내수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22.8	110.0	117.8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01.6	106.6	102.6	-3.8	-16.5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4.21.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4.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기상 악화로 '25년 1분기 주요 광산업체 철광석 생산량 감소

- 브라질 대표 광산업체인 발레(Vale)의 '25년 1분기 철광석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전 분기 대비 20.7% 감소한 6,770만 톤을 기록함⁴⁰⁾
 - 발레의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기상 조건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매량은 6,6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함
- 같은 기간 호주 대표 광산업체인 리오티토(Rio Tinto)는 7,07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19년 이후 가장 낮은 생산량임⁴¹⁾
 - 이는 호주 북서부를 강타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해 댐피어(Dampier)항만 운영이 차질이 발생하면서 약 1,300만 톤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임
 - 리오티토는 앞으로 악천후가 지속된다면, 연간 공급 목표량의 하단치인 3억 2,300만 톤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리오티토는 약 1억 5,000만 호주달러 규모의 복구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는 최소 절반 수준의 생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40) GMK Center(2025.04.16.), [https://gmk.center/en/news/vale-reduced-iron-ore-production-by-4-5-y-y-in-q1/\(2025.04.21. 검색\)](https://gmk.center/en/news/vale-reduced-iron-ore-production-by-4-5-y-y-in-q1/(2025.04.21. 검색))

41) GMK Center(2025.04.16.), [https://gmk.center/en/news/rio-tinto-cuts-iron-ore-supply-to-lowest-since-2019-in-q1/\(2025.04.21. 검색\)](https://gmk.center/en/news/rio-tinto-cuts-iron-ore-supply-to-lowest-since-2019-in-q1/(2025.04.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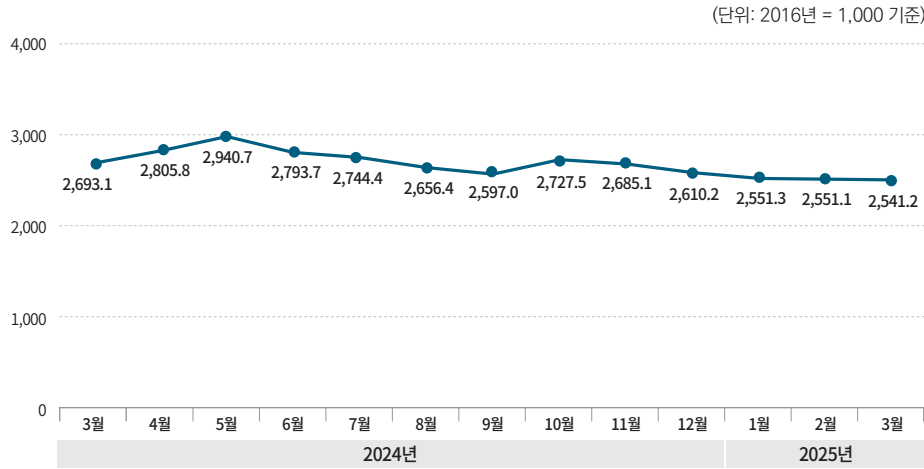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3월 광물종합지수는 2,541.2p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

’25년 3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2,541.2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693.1p) 대비해서는 5.6%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693.1	2,805.8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0.4	-5.6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4.17. 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4.17.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정부, '30년까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추진⁴²⁾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5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임
- 정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8개 주요 정책 과제를 수립함
- 주요 내용으로는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원료 공급망 DB 구축, 원료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됨
-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선도기업 지원과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 미국, 의존도 높은 핵심광물 관세 제외⁴³⁾

- 미국의 상호관세 부속서에 따르면, 희토류 금속과 각종 희토류 산화물 및 염화물 등은 대거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희토류는 전자제품을 비롯한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필수 원자재로서,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의 약 70% 가량을 생산 뿐만 아니라 정·제련 등 가공하고 있음
- 흑연의 경우 약 90%가 중국에서 정제되고, 정제 코발트의 75% 이상은 중국산 임
- 희토류와 천연 흑연, 코발트, 각종 리튬 합성물 등은 미국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들로, 이번 상호관세 대상 제외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공급망 지배력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미 정부가 희토류 등이 포함된 해저 광물인 '망간 단괴'를 국가전략물자로 비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3.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966&pWise=sub&pWiseSub=1>(2025.04.17. 검색)

43) 한겨레(2025.04.15.), <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1192205.html>(2025.04.17. 검색)

- 망간 단괴는 심해 바닥에 있는 광물 자원으로, 주성분인 망간 외에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의 금속 성분도 함유하고 있음
-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원자재 전쟁으로 비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 EU, 핵심광물 확보 위해 47개 전략 프로젝트 선정⁴⁴⁾

- ❖ 유럽연합(EU)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47개의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함
- 해당 프로젝트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13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총 투자규모는 225억 유로(한화 약 35조 5,600억 원)로, 추출, 가공, 재활용 등 원자재 가치 사슬 전 과정이 포함됨
- 대상 원자재는 리튬, 니켈, 희토류 등 14개 주요 광물이 대상이며, 배터리 및 방위산업에 활용될 예정임
- EU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내 추출 비율을 EU 수요의 10%, 가공 비율 40%, 재활용 비율 25%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방위·항공우주산업에도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4) The GURU(2025.03.26.),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5047\(2025.04.17. 검색\)](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5047(2025.04.17. 검색))

8) 목재



1 '25년 1~3월 원목 수입량은 38만 1천m³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성형목재와 파티클보드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제재목과 목재펠릿 수입량은 증가함
 - 제재목 수입량은 33만 7천m³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성형목재 수입량은 16,99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함
 - 합판(3.5%), 파티클보드(11.5%), 섬유판(19.4%)의 수입량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103만 3천톤으로 17.5% 증가함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나 '25년에는 미국의 높은 침엽수 가격으로 미국 주택건축 자재비에 계속 영향을 미침
 -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내의 환율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3월)	2024년 누적 (1-3월)	증감률 (%)
원목(천m³)	381	415	-8.2%
제재목(천m³)	337	327	+3.1%
성형목재(톤)	16,991	19,211	-11.6%
합판(천m³)	329	341	-3.5%
파티클보드(천m³)	340	384	-11.5%
섬유판(천m³)	50	62	-19.4%
목재펠릿(천 톤)	1,033	879	+17.5%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04.23.),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d=3206940&bbsl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l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4.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d=3206940&bbsl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l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4.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화순 이양농공단지에 목재산업단지 준공, 국내 3번째 목재산업 거점 마련⁴⁵⁾

- 전라남도가 화순 이양농공단지에 목재산업단지를 완공하고 4월 1일 준공식을 개최함
 - 이번 목재산업단지는 2022년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었으며, 충북 제천, 강원 춘천에 이어 국내 3번째임
 - 총 6,600㎡(약 2,000평) 규모로 3개의 가공동과 1개의 보관동에 프리컷 가공기, 프레스 가공기, 핑거조인트 등 생산장비를 갖춘
- 목재산업단지는 탄소저감 효과와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목재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친환경 소재로, 한국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41평형 목조주택 건축 시 승용차 45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34톤의 탄소를 저장함
 - 운영사인 친환경목조건축협동조합은 전남의 주요 생산수종인 편백, 삼나무 등을 활용해 구조용집성재 및 CLT(집성판) 등을 생산·판매할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5) 전남도청 보도자료(2025.04.01.), [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8434&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B%A9%EC%9E%AC&searchStDate=&searchEnDate=&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5.04.17. 검색\)](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8434&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B%A9%EC%9E%AC&searchStDate=&searchEnDate=&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5.04.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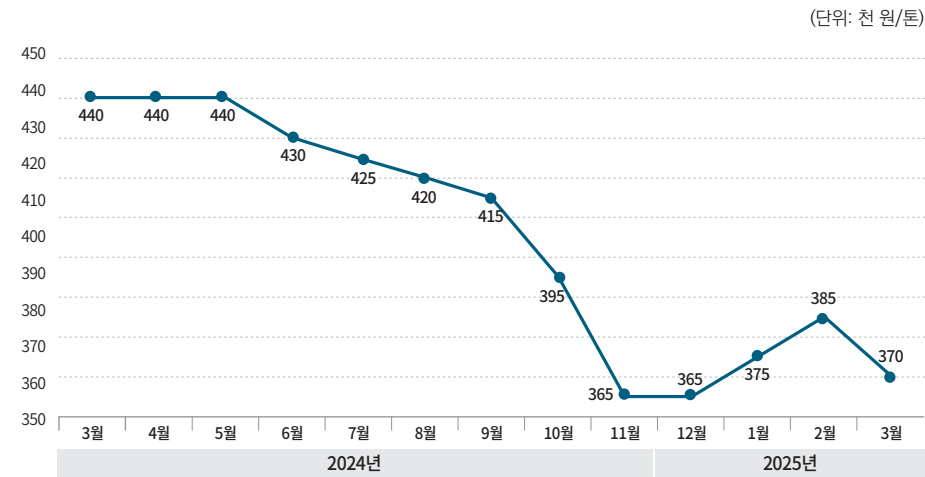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하락

- 국내 3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톤당 37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9% 하락한 수준임
- '24년 12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 또는 보합세를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25년 2월까지 2달 연속 상승했으나, 3월 다시 하락세를 기록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40	440	440	430	425	420	415	395	365	365	375	385	370	-3.9	-15.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4.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4.23.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4.23.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지난해 철강 수요 부진으로 국내 고철업계 영업이익 감소⁴⁶⁾

역대급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철스크랩사 30곳 중 10곳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함

-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국내 주요 철스크랩 업체 30곳의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매출은 총 3조 4,6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0% 급증한 51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철스크랩 유통을 비롯한 골재 제조·판매 등 상대적으로 사업군이 다양한 에스피네이처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으로, 에스피네이처를 제외한 29개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3% 줄어든 224억 원임
- 철스크랩 업체의 매출 부진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제강사 철스크랩 소비는 전년 대비 13.3% 감소, '08년도 이후 최저치인 2,264만 톤을 기록함
- 에스피네이처를 제외한 지난해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0.7%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일부 업체는 원가 절감에 성공하며 이익을 달성한 반면, 10곳의 업체는 높은 고정비로 인해 적자를 기록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6) 철강금속신문(2025.04.16.),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4/16/PS010416010100301B0001.pdf>(2025.04.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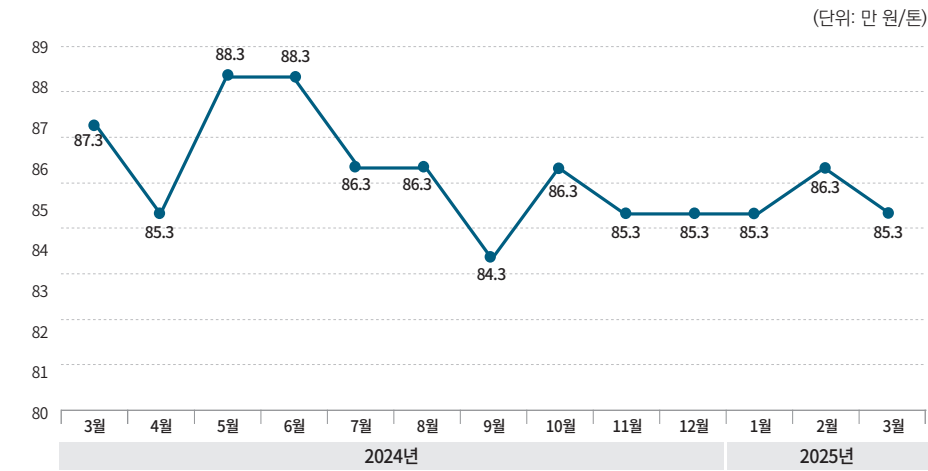
10) 철재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소폭 하락

- 3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1.2% 하락한 85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7.3	85.3	88.3	88.3	86.3	86.3	84.3	86.3	85.3	85.3	85.3	86.3	85.3	-1.2	-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4.21.),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4.22.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4.22.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 3월 중국산 후판 수입 48.5% 급증⁴⁷⁾

-  기획재정부가 오는 4월 24일부터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산 후판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잠정관세 시행 직전인 3월 중국산 후판 수입은 약 8만 9천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48.5% 증가한 수치임
- 평균 수입가격 또한 2월 톤당 653달러에서 3월 톤당 605달러로 7.4% 하락했으며, 저가 수입으로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철강업계의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분석됨
- 관세가 본격 부과되는 4월 이후엔 수입 물량 감소에 따른 국내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수입재 의존도가 높은 중소 조선·건설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부는 4월 24일부터 4개월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7) 철강금속신문(2025.04.09.), <https://pdf.snmnews.com/PDF/REAL/2025/04/09/PS010409010100601B0001.pdf>(2025.04.22. 검색)

11) 자동차



1 '25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내수·수출·생산 모두 증가 전환⁴⁸⁾

- 2월 내수는 전월 대비 25.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한 132,854대를 기록함
 - 구정연휴의 전년 2월에서 금년 1월로 이동에 따른 영업일수 증가와 이른 전기차 보조금 확정 효과가 주요 원인임
 - 친환경차는 전년 동월 대비 50.0% 급증한 60,294대로, HEV(+24.9%), EV(+295.7%), PHEV(+120.9%) 모두 증가함
- 2월 수출은 전월 대비 16.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3% 증가한 232,977대를 기록함
 - 전년 대비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현대, 기아, 한국지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임
 - 친환경차 수출은 HEV(+61.7%)와 PHEV(+50.5%)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2.0% 증가한 68,962대 기록
- 2월 생산은 전월 대비 21.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한 352,061대를 기록함
 -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로 내수와 수출물량을 확보하며 KGM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증가세 전환
 - 현대는 21.1%, 기아는 17.1%, 한국지엠은 17.6% 증가했으나, KG모빌리티는 21.4% 감소함

단위 : 대, 백만 \$, %

'24년 2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1월
내수	1,626,245	115,745	232,209	105,928	132,854	238,782	25.4	14.8	2.8
(국산차)	1,344,432	99,492	202,861	89,446	111,089	200,535	24.2	11.7	-1.1
(수입차)	281,813	16,253	29,348	16,482	21,765	38,247	32.1	33.9	30.3
수출	2,782,612	198,608	441,792	199,854	232,977	432,831	16.6	17.3	-2
(완성차 수출액)	70,786	5,152	11,362	4,993	6,067	11,060	21.5	17.8	-2.7
(부품 수출액)	22,549	1,952	3,853	1,555	1,871	3,426	20.3	-4.2	-11.1
생산	4,128,242	300,459	658,923	290,588	352,061	642,649	21.2	17.2	-2.5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3.31.),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41&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4.21.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8)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3.31.),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41&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4.21. 검색)

2 정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⁴⁹⁾

-  정부는 4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함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25% 관세부과로 국내 자동차산업(대미수출 자동차 347억 불, 부품 82억 불)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 대책 마련
 - 기업의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함
-  주요 대책으로 긴급 유동성 3조 원을 신규 지원하고 내수시장 진작 및 투자 환경 개선책을 추진함

 -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 공급(기존 '25년 13조 원→15조 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지원
 -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
 -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 제도도 연말까지 연장
-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환경도 개선함

 - 자율주행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 기업들에 세액공제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적용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
 -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 대응도 강화할 계획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4.09.),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39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04.21. 검색\)](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39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04.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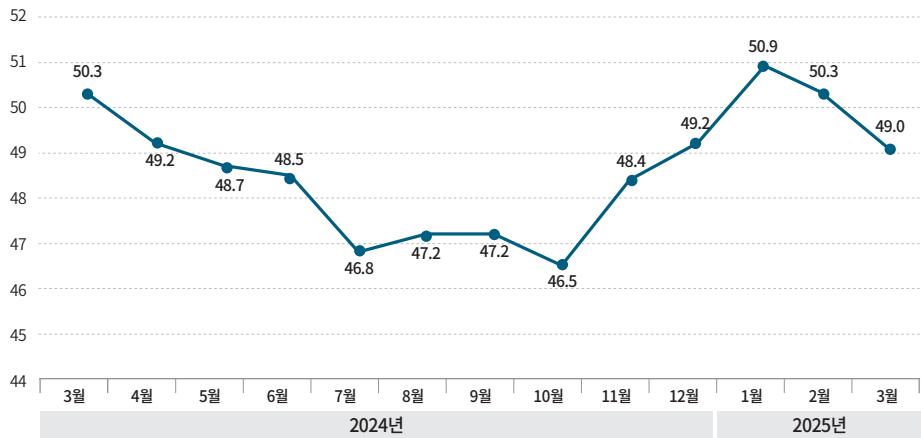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p로 전월 대비 하락⁵⁰⁾

- 3월 PMI지수는 전월(50.3p) 대비 하락하였으며, 시장의 예상치인 49.5p보다 낮았으며, 최근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축 국면으로 전환
- 세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신규 주문은 45.2p(전월 48.6p)로 위축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주 잔고는 44.5p(전월 46.8)로 이 역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한편, 고용은 44.7p(전월 47.6)로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생산은 48.3p(전월 50.7p)로 생산 역시 감소로 전환됨
- 가격은 69.4p(전월 62.4p), '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압력으로 이 같은 수치는 수요와 생산이 후퇴하고 감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서 수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반증
- 또한, 관세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신규 주문 적체, 공급자 납품 지연, 제조업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4.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50) Trading Economics(2025.04.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5.04.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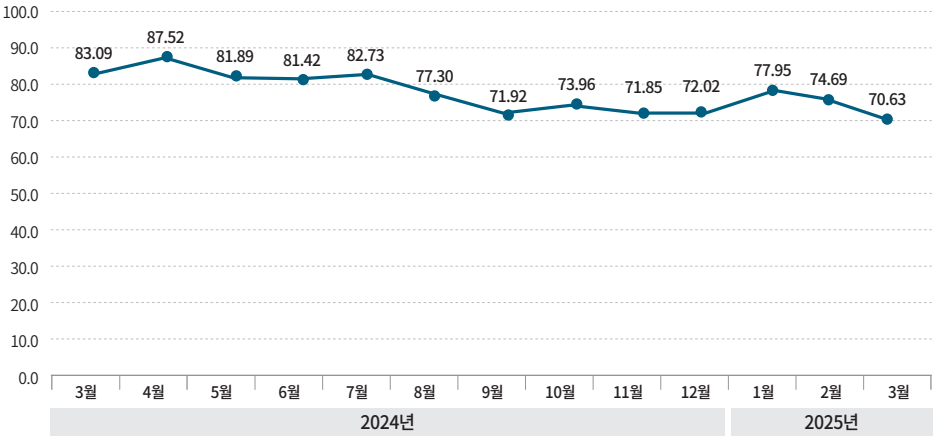
13) 유류



1 '25년 3월 국제유가, 1월 이후 하락세 지속

- '25년 1월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3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7.0% 하락한 70.63달러를 기록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요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 우려로 당분간 유가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4.18	89.17	84.04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77.92	72.49	-7.0	-13.9	
Brent	84.67	89.00	83.00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4.95	71.47	-4.6	-15.6	
WTI	80.41	84.39	78.62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1.21	67.94	-4.6	-15.5	
평균	83.09	87.52	81.89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74.69	70.63	-5.4	-15.0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4.21.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4.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한-미 한-미 알래스카 LNG 협력 본격화⁵¹⁾

 한-미 간 알래스카 LNG 개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알래스카 LNG 관련 한미 화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알래스카 LNG와 조선 산업을 주요 협상 의제로 제시함
-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 일본, 인도와의 즉각 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알래스카 LNG 도입이 성사되면 한국은 저렴한 미국산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수입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증권업계는 카타르, 오만과의 LNG 계약이 끝난 한국가스공사와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로의 트레이딩 사업 기회를 노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참여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한국경제TV(2025.04.14.),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4140320&t=NNv\(2025.04.21. 검색\)](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4140320&t=NNv(2025.04.21. 검색))

3 관세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 악화 전망⁵²⁾

-  미국발 관세전쟁 심화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음
 -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2021년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브렌트 유는 배럴당 62달러를 기록했으며, 정유업계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도 '23년 배럴당 3.1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1~2월에는 -0.1달러를 기록함
 -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정유 부문 영업이익률은 '22년 6.4%에서 '24년 -0.1%로 하락하며 실적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석유제품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으나, 세계 경기 위축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간접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 석유협회는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하면서 국내 정유산업이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황 부진 타개를 위해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 면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대기업 적용', '액화석유가스 수입 부과금 형평성 개선' 등 정책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연합뉴스(2025.04.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125800003?input=1195m>(2025.04.21.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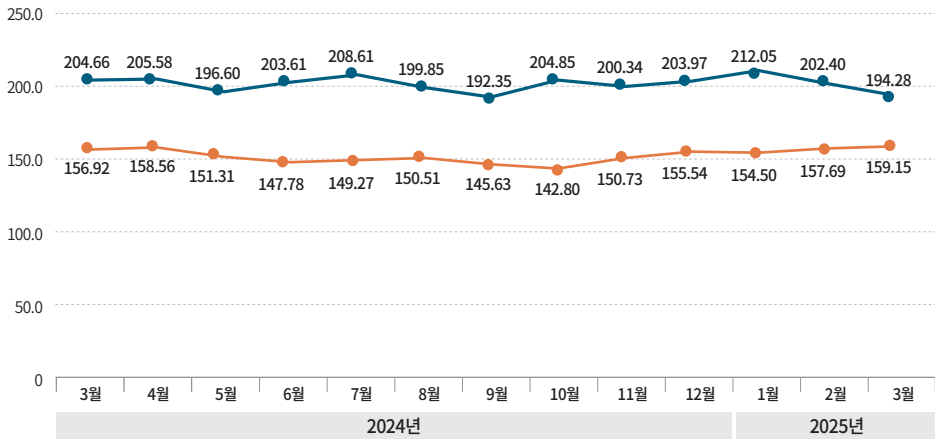


1 '25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하락,
에틸렌 소폭 상승

- 3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0% 하락한 194.28p를 기록했으며, 에틸렌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여 159.15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면서 유가 하락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4.66	205.58	196.60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4.0	-5.1
에틸렌	156.92	158.56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0.9	1.4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4.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4.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 업체, 업황 회복 지연과 소재 사업 등 동반 부진⁵³⁾

-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업황 부진과 전기차 배터리 및 소재 사업의 동반 부진으로 1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SK이노베이션은 유가 약세에 따른 정유·석유화학 부문의 부진과 배터리 사업 캐즘에 따른 수요 정체로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됨
 -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공급 과잉과 전방산업인 전기차 수요 감소로 1분기 1,394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됨
 - LG화학은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 효과로 긍정적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으나, 석유화학과 양극재 사업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주요 업체들은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수익 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사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SK E&S와 합병을 결정했으며, 재무건전성을 제고와 함께 석유 에너지, 화학,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임
 - 고강도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 중인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회사를 매각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LG화학은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매각을 추진하며 석유화학 부문 효율화에 나서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이데일리(2025.04.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50566642136120&mediaCodeNo=257&OutLnkChk=Y\(2025.04.21. 검색\)](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50566642136120&mediaCodeNo=257&OutLnkChk=Y(2025.04.21. 검색))

3 포스코, 미국 내 블루암모니아 생산설비 구축 사업 철회⁵⁴⁾

-  포스코그룹은 수요처인 아시아권 국가들의 청정암모니아 인증 기준 차이와 수요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미국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계약을 철회함
- 해당 사업은 시에프인더스트리즈와 미국 루이지애나에 블루암모니아 설비를 구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90% 이상 줄이고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음
 - 포스코는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한 청정 암모니아를 국내에 들여와 수소환원제철, 수소혼소발전 등에 활용하고 일부를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계획이었음
 - 다만, 아시아권 국가의 청정 암모니아 인증 기준이 상이하여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져 계약에 서명하지 않음
 - 포스코의 철회 이후, 일본 기업인 제라와 미쓰이물산이 사업에 참여해 3자 합작 형태로 총 40억 달러(약 5조 6,860억 원)를 투자하여 연간 14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마이데일리(2025.04.15.), [https://mydaily.co.kr/page/view/2025041511181595444\(2025.04.21. 검색\)](https://mydaily.co.kr/page/view/2025041511181595444(2025.04.21.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4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